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359

JCCT 2022-9-44

대학생의 유형별 학습효과가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Factors Influencing the Learning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by Type on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이국권*, 채수인**, 김재호***

Kuk-Gwen Lee*, Chae Su In**, Jae Ho Ki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유형별 학습효과가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수집은 총 250부를 배포하여 응답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한 31부를 제외하고 총 21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습효과는 동거형태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혼자, 친구 순으로 학습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학습은 동거형태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혼자, 친구, 선후배 순으로 지각학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학습은 동거형태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친구, 혼자, 선후배 순으로 인지학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만족도는 동거형태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혼자, 선후배, 친구 순으로 대학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발견학습, 지각학습, 인지학습이 높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발견학습이 대학생활만족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대학은 학생이 개인과 공동체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또한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하여 관련된 상담실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대학생, 학습효과, 대학생활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learning effects by type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for college students. A total of 250 copies of the survey were distributed, and a total of 219 copies were used for analysis except for 31 copies, excluding questionnaires with many poor or missing questions. The learning effect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orm of cohabitation, and it was found that the learning effect was high in the order of alone and friends. Perceptual learning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orm of cohabitation, and it was found that perception learning was high in the order of alone, friends, and seniors and juniors. Cognitive learning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orm of cohabitation, and cognitive learning was found to be high in the order of friends, alone, and seniors and junior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llege satisfaction with the type of cohabitation, and it was found that college satisfaction was high in the order of alone, seniors and juniors, and friends. Finally, the higher the discovery learning, perceptual learning, and cognitive learning, the higher the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among them, discovery learning was foun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Overall, the university should provide an environment where students can freely move betwee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nd live their university life. In addition, in preparation for problems occurring in the community, it will be necessary to activate the related counseling room.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Effects, College Life Satisfaction

*준회원,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주저자)
**준회원, 청운대학교 경영학과 학사과정 (공동저자)
***준회원, 청운대학교 융합경영학부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8월 30일, 수정완료일: 2022년 9월 5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9일
(본 연구는 2022년 청운대학교 학술지원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Received: August 30, 2022 / Revised: September 5, 2022

Accepted: September 9, 2022

***Corresponding Author: kim2144@daum.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기 위한 시기로, 성인기 준비과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 이 시기는 사회인이 되기 위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여 진로 준비와 결정을 구체화하고, 작업에서 요구되는 조건과 자신의 욕구 및 능력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시기이다[2]. 이 과정에서의 대학생활만족도는 대학 생활의 적응력과 학업 몰입도는 물론, 졸업 후 진로 선택이나 사회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생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

대학생활만족도는 대학교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인 호감도를 의미한다[4, 5].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률과 직업만족도가 높아진다[6]. 반대로 대학생활만족도가 낮은 경우 진로성숙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7].

2021년 기준 대학진학률은 73.7%로 200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래 지속해서 상승 중이다[8]. 그러나 대학이수율은 2020년 기준 50.7%로, 대학진학률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9].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의 대학진학률은 평균 71.5%인 반면 대학이수율은 평균 45.3%로, 약 26%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9년 OECD는 '교육지표 2019'를 통해 한국의 25~34세 청년층의 대학졸업률은 69.9%로, OECD 평균 44.3%를 넘어서며 OECD 중 1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의 취업률은 OECD 평균 84.2%보다 약 7.5% 낮은 76.7%로 밝혀졌다[10].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2021 서울대학교 기준대학생활만족도는 약 38.5%로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져 대학중도탈락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11]. 따라서 대학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의의 개편을 고려하여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김주석(2022)은 대학생활만족도와 교육과정 만족도 및 재학률과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12]. 문영주(2021)는 이러닝 학습자의 학습환경과 학습동기가 학습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13]. 김은주(2014)는 대학생들의 학습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만족도, 자기주도학습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14].

이와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서만 연구되어왔다. 본 논문은 학습효과를 유형별로 구성하여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유형별 학습효과가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습효과

학습효과란 학습활동의 결과로, 제시된 과제와 수업에 따른 지적능력, 태도, 운동기능 등의 변화로 정의된다[15]. 또한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지각하는 변화와 발달 수준으로 정의된다[16]. 학습효과 유형으로는 발견학습, 지각학습, 인지학습으로 구분된다.

발견학습이란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을 최종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원리나 법칙, 정보들 간의 관계 등을 발견하고 조직하도록 도와주는 학습으로 정의된다. 이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강조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형태로, 교사는 학습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17].

지각학습이란 감각학습의 한 유형으로 학습자가 경험을 이해하고,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감각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8]. 지각학습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습유형으로 청각적, 시각적, 접촉, 근육 운동적인 유형들을 포함한다[19, 20].

인지학습이란 개인의 지적능력을 활용한 학습을 의미하며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21]. 또한 개인이 사물이나 대상을 보고, 기억하고,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독특한 학습양식으로서 개인의 일정한 태도, 선호 혹은 습관적인 전략으로 정의된다[22, 23]. 인지학습은 대표적으로 장을 인식하는 유형에 따라 구분한 장독립형/장의존형 학습양식, 학습계획 유형에 따라 구분한 체계적/직관적 학습양식, 학습자의 성격이나 정의적인 특성에 따른 정의적 학습양식 등등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24].

최희선(2020)은 국내 대학생들의 인출연습이 집중학습의 한계를 보완하고 분산학습과 같은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인출연습을 통해 학습 간격에 상관없이 집중학습과 분산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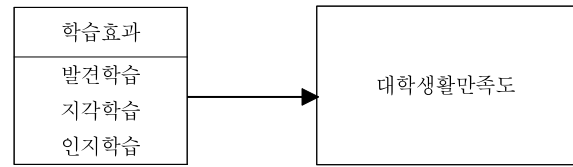
모두에서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25]. 박영선(2007)은 학습 동영상의 자막 유·무에 따른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자막이 있을 때 학습효과가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이 밝혀졌다[26]. 정상배·양해술(2012)은 유형별 학습효과와 대학생활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애착과 만족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발견 학습효과는 정서 대학생활에, 발견 학습효과는 신체 대학생활에, 지각 학습효과는 사회 대학생활에, 지각 학습효과는 정서 대학생활에, 인지 학습효과는 신체 대학생활에, 학문 대학생활은 대학생활 만족도에, 신체 대학생활은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2. 대학생활만족도

대학 생활이란 대학에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우와의 상호작용, 학업, 학교 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28]. 대학생활만족도란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과정과 활동들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 상태로 정의된다[29]. 또한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와 경험치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전반적인 교육활동과 진로 및 행정 지원 등이 포함된다[30, 31]. 그리고 대학에서 겪는 만족스러운 대학생활 경험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학업 수행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진출과 직업 등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21]. 또한 대학생활만족도는 학업의 중도 탈락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32, 33]. 따라서 현재의 대학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34].

오선화(2020)는 시간관리행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학생활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 시간관리행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학생활만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했음이 밝혀졌다[35]. 이동휘(2020)는 스포츠동아리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여가만족을 통해 대학생활만족과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여가만족이 대학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36]. 김성희(2022)는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또래 코칭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또래 코칭, 자기주도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열의, 대학생활만족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또래 코칭이 대학생들의 자기주도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촉진하여 학업열의와 대학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37].



3.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습효과를 중심으로 발견 학습 효과와 지각학습 효과와 인지학습에 대한 관계를 밝히고 대학생활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 1-1 : 학습효과는 대학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 발견학습은 대학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 지각학습은 대학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4 : 인지학습은 대학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유형별 학습효과가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유형별 학습효과가 대학생활만족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연구로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의뢰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총 250부를 배포하여 응답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한 31부를 제외하고 총 21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유형별 학습효과 측정도구는 장상병(2013)의 연구도구[38]를 사용하였으며, 3개 하위요인으로 발견학습 8문항, 지각학습 4문항, 인지학습 5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777, .613, .731이었다. 대학생생활만족도는 5개문항 5점 리커트척도로 Cronbach's α 값은 .735이었다

표 1. 유형별 학습효과
Table 1. Learning effects by type

요인	내 용	신뢰도
발견 학습	1. 나는 지식획득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2. 나는 지적능력 개발과 합리적 비판적인 사고를 배양한다. 3. 나는 스스로 발견한 것을 잘 기억한다. 4. 나는 스스로 자신의 학습방향을 찾고, 학습 성과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5. 나는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 6. 나는 창의성과 더불어 계획, 조직, 판단과 같은 높은 수준의 지적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7. 나는 평생학습의 방법과 태도를 익히게 된다. 8. 나는 과학적 조사의 기술을 함양할 수 있다.	.813
지각 학습	1. 나는 학습을 통해서 이전에 관과 했던 지식을 알게 되었다. 2. 나는 연습효과를 관찰함으로써 시험하고,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3. 나는 능동적, 탐구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4. 나는 모방과 관찰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인지 학습	1. 나는 학습의 흥미나 태도에 관심을 가졌다. 2. 나는 학습의 사전경험에 관심을 가졌다. 3. 나는 언어적 지식이나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졌다. 4. 나는 정보처리 능력의 관찰 가능한 행동에 관심을 가졌다. 5. 나는 계열화된 자료를 정리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3. 자료 분석

SPS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 t-test, oneway ANOVA,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대학생 중 여자는 전체의 62.6% 남자 37.4%, 학년은 3학년 39.3%, 4학년 22.8%, 2학년 16.9%, 1학년 11.4%, 기타 9.3% 순이었다. 동거형태는 친구 63.8%, 가족 16.4%, 선후배 11.9%, 혼자 8.2%였으며, 한달용돈은 30~40만원 33.8%, 30만원 미만 25.6%, 40~50만원 미만 22.8%, 50만원이상 17.8%로 나타났다.

표 2.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
Table 2.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구분	N	백분율 (%)	평균 (SD)
성별	남자	82	37.4
	여자	137	62.6
학년	1학년	25	11.4
	2학년	37	16.9
	3학년	86	39.3
	4학년	50	22.8
	기타	21	9.3
동거 형태	친구	139	63.5
	선후배	26	11.9
	가족	36	16.4
	혼자	18	8.2
한달 용돈	30만원이하	56	25.6
	30-40만원 미만	74	33.8
	40-50만원 미만	50	22.8
	50만원 이상	39	17.8

2. 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1) 학습효과 평균

학습효과의 평균을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점 만점에 평균 3.07점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 학습효과 평균
Table 3. Learning Effectiveness Average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학습효과	219	2.00	4.29	3.07	.41

2) 요인별 학습효과 평균

요인별 학습효과 평균을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지학습 3.30, 지각학습 3.25, 발견학습 3.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요인별 학습효과 평균
Table 4. Average Learning Effectiveness by Day of the Week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발견학습	219	2.00	5.00	3.24	.480
지각학습	219	2.00	4.50	3.25	.505
인지학습	219	2.00	4.60	3.30	.555

3) 대학생생활만족도 평균

대학생활만족도 평균을 살펴보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점 만점에 평균 3.20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 대학생활만족도 평균

Table 5. Average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대학생활만족도	219	1.00	4.60	3.20	.515

3.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습효과, 발견 학습, 지각학습, 인지학습의 차이

1)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습효과 차이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습효과 차이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동거형태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형태에 따른 학습효과는 5점 만점에 혼자 3.1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친구 3.12점, 선후배 3.03점, 가족 2.84점 순으로 나타났다.

Duncan을 통한 사후분석결과 가족보다 친구, 혼자가 학습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습효과는 동거형태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친구, 혼자가 학습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습효과 차이

Table 6. Differences in Learning Effect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값	duncan	
성별	남자	82	3.68	.48	-.077	-
	여자	137	3.07	.36		
학년	1학년	25	2.99	.37	1.621	-
	2학년	37	2.94	.33		
	3학년	86	3.10	.39		
	4학년	50	3.14	.46		
	기타	21	3.09	.50		
동거형태	친구	139	3.12	.41	5.024**	b
	선후배	26	3.03	.33		ab
	가족	36	2.84	.34		a
	혼자	18	3.15	.47		b
한달용돈	30만원이하	56	3.05	.39	.114	-
	30-40만원 미만	74	3.07	.34		
	40-50만원 미만	50	3.05	.45		
	50만원 이상	39	3.09	.49		

**p<.01

2)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발견학습 차이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발견학습 차이를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3)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지각학습 차이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지각학습 차이를 살펴보면 <표 8>과 같이 동거형태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형태에 따른 지각학습은 5점 만점에 혼자 3.3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친구 3.31점, 선후배 3.23점, 가족 2.97점 순으로 나타났다. Duncan을 통한 사후분석결과 가족보다 혼자, 친구, 선후배의 지각학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지각학습은 동거형태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혼자, 친구, 선후배의 지각학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발견학습 차이

Table 7. Differences in Discovering and Learning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값	duncan	
성별	남자	82	3.24	.57	.167	-
	여자	137	3.23	.41		
학년	1학년	25	3.18	.47	2.134	-
	2학년	37	3.05	.38		
	3학년	86	3.27	.45		
	4학년	50	3.34	.53		
	기타	21	3.27	.55		
동거형태	친구	139	3.28	.47	2.456	-
	선후배	26	3.17	.39		
	가족	36	3.06	.44		
	혼자	18	3.31	.61		
한달용돈	30만원 이하	56	3.23	.47	.135	-
	30-40만원 미만	74	3.26	.40		
	40-50만원 미만	50	3.21	.48		
	50만원 이상	39	3.24	.60		

표 8.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지각학습 차이

Table 8. Differences in Perceptual Learning by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값	duncan	
성별	남자	82	3.23	.56	-.327	-
	여자	137	3.26	.46		
학년	1학년	25	3.17	.52	.408	-
	2학년	37	3.20	.42		
	3학년	86	3.28	.48		
	4학년	50	3.29	.51		
	기타	21	3.22	.68		
동거형태	친구	139	3.31	.50	4.934**	b
	선후배	26	3.23	.42		b
	가족	36	2.97	.47		a
	혼자	18	3.36	.50		b
한달용돈	30만원이하	56	3.33	.56	.315	-
	30-40만원 미만	74	3.28	.52		
	40-50만원 미만	50	3.25	.59		
	50만원 이상	39	3.37	.57		

**p<.01

4)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지학습 차이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지학습 차이를 살펴보면 <표 9>와 같이 동거형태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형태에 따른 인지학습은 5점 만점에 친구 3.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혼자 3.35점, 선후배 3.30점, 가족 2.97점 순으로 나타났다. Duncan을 통한 사후분석결과 가족보다 친구, 혼자, 선후배의 인지학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지학습은 동거형태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친구, 혼자, 선후배의 인지학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인지학습 차이
 Table 9. Cognitive learning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f값	dun can
성별	남자	82	3.28	.59	-.448	-
	여자	137	3.32	.53		
학년	1학년	25	3.13	.58	2.111	-
	2학년	37	3.14	.51		
	3학년	86	3.35	.51		
	4학년	50	3.41	.59		
	기타	21	3.39	.58		
동거 형태	친구	139	3.38	.52	5.467***	b
	선후배	26	3.30	.53		b
	가족	36	2.98	.57		a
	혼자	18	3.35	.61		b
한달 용돈	30만원이하	56	3.19	.49	.432	-
	30-40만원 미만	74	3.26	.44		
	40-50만원 미만	50	3.28	.58		
	50만원 이상	39	3.27	.53		

***p<.001

5)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만족도 차이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이 동거형태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형태에 따른 대학만족도는 5점 만점에 혼자 3.3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선후배 3.27점, 친구 3.23점, 가족 2.97점 순으로 나타났다. Duncan을 통한 사후분석결과 가족보다 혼자, 선후배, 친구가 대학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만족도는 동거형태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혼자, 선후배, 친구 대학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만족도 차이
 Table 10. Differences in University Satisfaction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f값	dun can
성별	남자	82	3.20	.56	.155	-
	여자	137	3.19	.48		
학년	1학년	25	3.12	.55	1.867	-
	2학년	37	3.06	.38		
	3학년	86	3.24	.48		
	4학년	50	3.18	.56		
	기타	21	3.40	.61		
동거 형태	친구	139	3.23	.56	2.929*	b
	선후배	26	3.27	.38		b
	가족	36	2.97	.43		a
	혼자	18	3.30	.30		b
한달 용돈	30만원이하	56	3.18	.52	.153	-
	30-40만원 미만	74	3.21	.47		
	40-50만원 미만	50	3.17	.58		
	50만원 이상	39	3.24	.49		

*p<.05

4. 대학생 발견학습, 지각학습, 인지학습이 대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 발견학습, 지각학습, 인지학습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로 제시하지 않음). 대학생 발견학습, 지각학습, 인지학습이 대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표 11>. Durbin-Waston 값은 1.902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은 없었다.

표 11. 대학생 발견학습, 지각학습, 인지학습이 대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11. Effects of Discovery, Perceptual, and Cognitive Learning on University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변인	모델 I		모델 II		
	β	t	β	t	
(상수)		15.965		3.347	
통제 변인	성별	-.007	-.102	-.016	-.294
	학년	.126	1.823	.053	.914
	동거 형태	-.056	-.817	.021	.364
	한달용돈	.023	.337	.009	.168
	발견학습			.266	3.514***
	지각학습			.185	2.370*
	인지 학습			.229	3.120**
F	1.200		15.934***		
R2	.022		.346		
R2 변화량	.022		.324		

*p<.05, **p<.01, ***p<.001

대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의 통제변인은 대학만족도를 2.2%, 2단계의 발견학습, 지각학습, 인지학습 32.43%를 설명하였다. 최종모델인 모델II을 중심으로 하여 각 변수의 설명력을 통제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해보면, 발견학습, 지각학습, 인지학습이 높을수록 대학생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발견학습이 대학생생활만족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습효과의 평균을 살펴보면 5점 만점에 평균 3.07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 학습효과 평균을 살펴보면 인지학습 3.30, 지각학습 3.25, 발견학습 3.24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생활만족도 평균을 살펴보면 5점 만점에 평균 3.20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습효과는 동거형태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혼자, 친구 순으로 학습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학습은 동거형태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혼자, 친구, 선후배 순으로 지각학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학습은 동거형태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친구, 혼자, 선후배 순으로 인지학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만족도는 동거형태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혼자, 선후배, 친구 순으로 대학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발견학습, 지각학습, 인지학습이 높을수록 대학생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발견학습이 대학생생활만족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동거 형태는 학습효과와 학습효과 유형, 대학생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학습효과와 학습효과 유형은 대학생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에 종속변수로만 설정되어 연구되어왔던 학습효과와 학습효과 요인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대학생생활만족도를 조사한 데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동거형태가 학습효과 및 학습효과 유형들과 대학만족도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은

학년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장소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은 학생이 개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설과 동거형태와 관련이 깊은 기숙사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한다.

셋째, 학습효과 유형 중 발견학습이 대학생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원리나 법칙, 정보 간의 관계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강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대학은 학생이 개인과 공동체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대학생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또한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하여 관련된 상담실의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References

- [1] Myung Sun Suh, JungeySung, Sung Sik Ahn, "A Study on the Motivation of College Students to Choose Their Career and Improve Satisfaction in College Life",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11, No. 2, pp. 109-130, 2021.
- [2] Hyo Young Lee, "The Effects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Work Values on Job Seeking Self-efficacy", *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 Vol. 16, No. 3, pp. 39-65, 2021.
- [3] Sook Ja Kim, "The Impact of the Motives of College Students for Choosing Majors on Career Decision-Making - Using Self-efficacy as a Mediation Effect",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Vol. 11, No. 3, pp. 221-228, 2018.
- [4] Sumaedi, S., Bakti, I., & Metasari, N., "The effects of students", perceived service quality and perceived price on student satisfaction, *Management Science and Engineering*, Vol. 5, No. 1 pp. 88-97, 2011.
- [5] Ha Yeon Lee, Ju Eun Go, Min Ho Joo, "Effects of University belonging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on Learning Persistence in Non-face-to-face Learning Environment due to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34, No. 1, pp. 231-251, 2021.
- [6] Joo Young Jung, "The Analysis on the Casual Model between University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Occupational Satisfaction mediated by Occupational Valu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31, No. 1, pp. 53-83, 2013.

- [7] Yong Joon So, Jun Seong Park,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b-seeking stress on career maturity in university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seeking anxiety",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6, No. 4, pp. 23-44, 2016.
- [8] e-Country Indicators. Attendance and Admission Rate Education Statistics Analysis Data Collection of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7.
- [9] e-Country Indicators Higher Education Yield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1.
- [10] OECD Education Indicators 2019.
- [11]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Consumer Satisfaction Survey Report, by SNU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2020.
- [12] Ju Seuk Kim. "Effect of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on Curriculum Satisfaction and Enrollment Rat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Undergraduate Integrated Recruitment and Individual Major Recruitment", *The Society of Korean Culture and Convergence*, Vol. 44, No. 6 pp. 357-374, 2022.
- [13] Young Joo Moon, "The Impacts of E-Learning Students' Learning Environment and Motivation on the Learning Effec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Flow",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13, pp. 529-544, 2021.
- [14] Eun Joo Kim.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llege satisfaction, professor-students interaction, self-directed learning, and learning outcomes of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4. No. 7, pp. 209-23, 2014.
- [15] Seong Yeon Jun, "Theoretical Exploration of Teaching-Learning", Wonmisa Publish, 2001
- [16] Yeong Lee, "Investigation on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er Characteristics, Learning Strategies, Teaching presence, and Learning Effects in Cyber University e-Learning,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2011.
- [17] Yun Hee Seung, "Application of J. Bruner's Discovery Learning Method in Music Education and a Stage Model for Discovery Learning",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Vol. 13 No. 3, pp. 475-495, 2009.
- [18] Ji Heui Bak, "The Effect of considering children's learning style and adopting matched language activities on English speaking competence." Major on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3
- [19] Reid, J. M. "The Learning style preferences of EFL students", *TESOL Quarterly*, Vol. 21, No. 1, pp. 87-111, 1987.
- [20] Jung Suk Kwon, "Study on The Correlation of Perceptual Learning Styles with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of Korean Elementary Students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6th grade-", Major in Elementary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2001.
- [21] Kang Hyock Koh, Ji Young Lee, "The effect of university education satisfa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Evidence from a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5, pp. 785-802, 2022.
- [22] Messick, S., 1976; Nak Won Kwon, Young Seong Min, 2003
- [23] Nak Won Kwon, Young Seong Min, "The Effects of Questioning Types on Academic Achievement by Cognitive Styl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0, No. 2, pp. 407- 428, 2003.
- [24] So Yeon Park, "A Study on the Perceptual Learning Style of High School Students and its Applications to the English Class",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2004.
- [25] Hee Seon Choi. "The Effect of Study Schedule and Methods on Learning: Investigating the Metacognitive Awareness of Study Strategies and their Effectiveness in Korean Undergraduates"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20.
- [26] Young Sun Park, "Effects of Effects of Subtitles in Moving Picture on Learning Effectiveness.", Department of Media Art The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s, Kyung Hee University, 2007.
- [27] Sang Bae Chang, Hae Sool Yang, "Chinese Students learning effect Impact on University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11, pp. 67-80, 2012.
- [28] In Ja Bang, "The Effect of Counseling Experience on Adaptation and Satisfaction of University : Focusing on P University", *Journal of Liberal Arts Education Studies*, Vol. 3, No. 1, pp. 87-111, 2018.
- [29] So Young Shin, Soung youn Kwon,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Influencing Factors”, Korea Lifelong Education & HRD Institute, Vol. 14, No. 4, pp. 111-133, 2018.

- [30]Stone, M. A. & Thomson, S. “How Far Can Marketing be applied within the Further Education Sector?”, The Quarterly Review of Marketing, pp. 16-19, 1987.
- [31]Hee Kyung Kee, Seung Hee Kang, Chae Young Yun, Eun Hwa Lee, “Trends and Influencing Factors of College Students’ College Life Satisfaction”, Korean Association Center of Teaching and Learning, Vol. 14, No. 1, pp. 1-26, 2021.
- [32]Baker, R. W., & Siryk, B.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No. 2, pp. 179-189, 1984.
- [33]Eun Jin Kwon, “The Confirmation of Five Factor Personality Structure Model and Its Relation to College Adaptation According to Sex”,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7.
- [34]Yong Suk Kim, “The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Sense of Belongings: The Longitudinal Analysis with Latent Growth Modeling”,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Vol. 11, No. 2, pp. 291-303, 2019.
- [35]Sun Hwa Oh, “The Mediated Effect of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Management Behavio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University Students.”,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Jeon-Ju University, 2020.
- [36]Dong Hui Lee, “Effects of leisur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sports club on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and exercise adherence”, Major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Department of Education Physical, Jeon-Buk University, 2020.
- [37]Seong Hee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Peer-Coaching on Academic Engagement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Graduate School of Department of Project Management Coaching Psychology, Soongsil University, 2022.
- [38]Sang Bae Chang, “The Effect of Chinese students’ learning on university life”, Department of Information Management ,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2013.

※ 본 연구는 2022년 청운대학교 학술지원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